

2분기 경제성장률 0.6%... 전분기비 국민총소득 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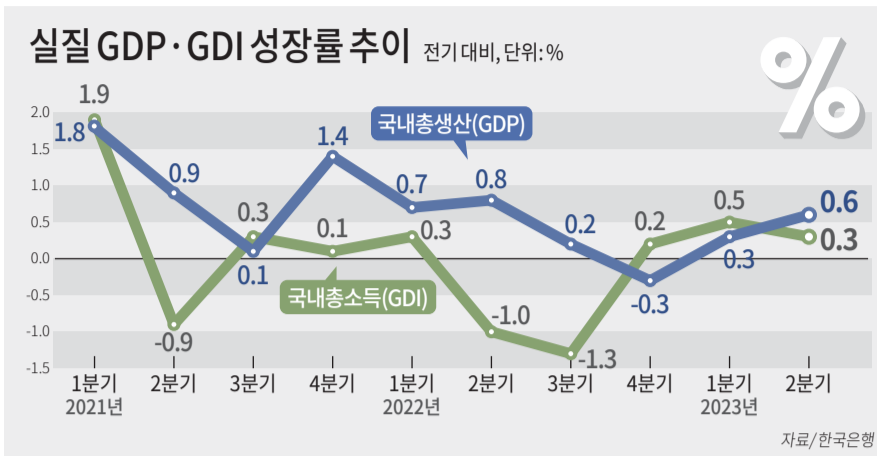
민간·정부 소비 ↓... GDP 영향
국외순수취요소소득 15조 → 10조
“미중 관계 등 불확실성 높은 상황”

2분기(4~6월)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0.7% 줄었다. 1분기 1.9% 증가했다가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소득, 1년만에 최대폭 감소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473조6000억원으로 1분기(476조9000억원)와 비교해 3조3000억원(0.7%)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0.9%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실질 GNI는 실질 국내총소득에서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것으로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 국가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실질 국내총소득은 전분기 462조원에서 463조2000억원으로 0.3% 증가한 반면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14조9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해외에서 국민이 벌어들인 돈에서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돈을 뺀 것이다.

최정태 국민계정부장은 “1분기 해외 직접투자배당금이 크게 늘어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크게 증가했는데, 전분기 급격하게 증가한 영향으로 2분기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며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 손실이 전분기 32조 2000억원에서 34조원으로 확대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총 저축액은 189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2% 상승했다.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소비 지출을 더 줄인 영향이다.

최중소비지출액은 375조5000억원의

로 전분기 대비 0.4% 감소한 반면, 국민 처분가능소득은 564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0.2% 감소했다.

◆ 0%대 성장 지속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이다. 지난해 역성장(-0.3%)한 이후 올 1분기 0.3%로 성장폭을 키웠지만 0%대 성장은 지속됐다.

국내총생산이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일정기간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으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을 더한 값이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준내구재(의류 및 신발)와 서비스(음식·숙박)를 중심으로 0.1% 감소했다. 정부소비도 2.1% 줄었다.

투자는 건설투자가 0.8% 감소했지만, 설비투자가 0.5% 증가했다. 운송

장비가 줄었으나 기계류가 늘어난 영향이다. 지식생산물 투자도 0.7%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이 늘었지만, 석유제품이 줄어 0.9% 감소했고, 수입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3.7% 줄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 따라 순수출의 GDP 성장 기여도는 1.4%포인트를 기록했다. 소비 지출(-0.5%) 등 내수(-0.8%)가 감소한 상황에서 순수출이 경제를 이끌었다.

최정태 국민계정부장은 “지금까지의 지표로 보았을 때 소비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수출부진도 완화돼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중국경제의 더딘 회복세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긴축우려 등 하방요인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미국 경제 연착륙 등 상방요인이 혼재해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물가상승률, 3%대 재진입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3.4%
집중호우,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

두 달째 2%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가 지난달에 다시 3%대로 뛰어올랐다. 집중호우 여파로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유가 반등에 따라 국내 휘발유 등 석유류가 가격 하락폭을 축소할 영향이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3.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3.7%) 이후 최근 4달 사이 가장 큰 폭이다. 7월에는 상승률이 2.3%에 그친 바 있다.

품목별로,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각각 3.9%, 3.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2.7% 상승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5.4%)이 크게 올랐다. 사과 30.5%, 복숭아 23.8%, 고구마 22.0%, 수박 18.6%, 쌀 7.8% 등이

다. 고등어(9.7%) 등 수산물 값도 5%(5.8%)대의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축산물 가격은 2.7% 하락했다. 국산쇠고기(-6.0%), 수입쇠고기(-7.3%), 달걀(-3.4%) 등의 내림세를 나타냈다. 빵(5.9%)과 우유(9.4%), 아이스크림(14.3%) 등의 가공식품은 6.3%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 7월(-25.9%) 크게 내려간 바 있으나 지난달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하락률이 -11.0%로 축소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물가에 대한 석유류 기여도는 -0.57%포인트(p)였다. 지난 7월(-1.49%p)보다 하락폭 기여도가 크게 축소돼 반대로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자체만으로, 기여도가 이번 전체 물가상승률의 8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韓, 금리 동결 등 안전벨트 채워둔 상황”

» 1면 ‘9월 위기설...’서 계속

특히 제2금융권은 건전성 악화 속도가 가팔랐다. 상호금융조합의 상반기 말 기준 연체율은 2.80%로 작년 말 대비 1.28%p나 상승했다. 법인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4.21%로 1.98%p나 뛰었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1.43%로 0.52%p 상승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원은 “9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우려에 그칠 뿐 각국 정부의 문제 인식과 대응책을 통해 상황이 호전되어 갈 수 있

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문 연구원은 “대내적으로는 한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금융 불안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벨트를 채워둔 상황”이라며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이 오는 2025년 9월까지 3년간 연장 가능하다는 점과 수요 회복에 기반한 아파트 가격 상승, 이번 달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등이 예상되면서 9월 위기설은 확대해석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15th H.O.T. 페스티벌
Health. Origin. Taste Festival

영양고추는 언제나 옳다!

2023.09.18.(월) ~ 09.20.(수)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Hot yeong yang 영양군 YEONGYANG-GUN